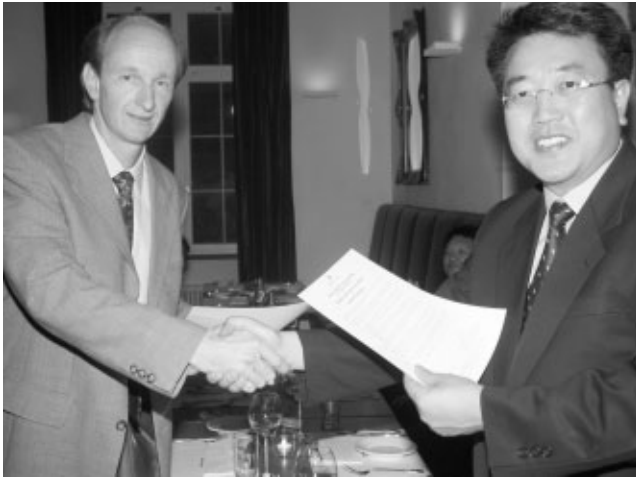


대덕벤처연, 대구TP-슈타인바이스 상호협력 체결



▲ 슈타인바이스 담닉 대표(사진 왼쪽)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사진 오른쪽)이 양해각서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대덕밸리와 대구 벤처기업이 독일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첫 물꼬를 트게 됐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와 대구테크노파크(단장 홍대일)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최대의

기술이전 및 컨설팅 전문기관인 슈타인바이스 재단(대표 담닉)과 각각 독일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과 대구테크노파크 장지상 부단장, 대덕밸리와 대구 벤처기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호협력 체결로 양 기관은 각각 독일시장 진출에 있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등 다각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 대구테크노파크 공동으로 개최한 'Korea Technology Executive Summit 2003'은 3일간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다.

대덕밸리 벤처기업과 대구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독일시장 공동 비즈니스단은 지난 22일부터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쳤다. 비즈니스단은 짧은 일정과 3개 도시를 넘나드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향후 독일시장 진출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 대덕밸리벤처기업소식 ■

하이퍼정보통신, '트루윈테크놀로지' 로 사명 확정

정보통신기기 제조전문 벤처기업 하이퍼정보통신(대표 남용현)은 지난 7일 임시주총에서 사명을 '트루윈테크놀로지'로 변경, 확정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트루윈테크놀로지(TRUWIN Technology Inc.)'는 영문 'True'와 'Winner'의 합성어로 세계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로 거듭나겠다는 기업의지를 담고 있다.

이 회사가 사명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VoIP, GPS, DMC, 자동차 부품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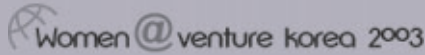
현재 이 회사는 자동차 페달시스템 및 부품의 세계 최대 업체인 미국 KSR사와 자동차용 센서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남용현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있는 수익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회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밸리 제2호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 회사는 지난 1994년 설립했으며 대덕밸리에서 매출액 순위 상위권을 다투는 대덕밸리 대표 벤처기업이다.



■ 여성벤처 컨퍼런스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는 7일오후 삼성동 COEX 아셈홀에서 세계 각 국의 여성기업인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성벤처 기업인들의 축제인 'Women@Venture Korea2003' 행사를 개최했다.

여성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벤처기업인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본 행사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배경으로 컨퍼런스 선상 네트워킹디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제프리존스(Jeffrey Jones), 일본 NBC(New Business Conference) 여성의장, KOTRA의 오영교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선진국 사례로 본 여성벤처기업의 역할, 여성기업이 갖는 전략과 과제, 여성인력의 올바른 활용방안 등에 관한 강연을 했다.

■ 여성벤처 네트워킹

7일 오후에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염원하는 의미로 한강 유람선에서 네트워킹 디너가 열렸다. 오후 6시30분 잠실 선착장에서 출발해 오후 9시 되돌아오는 코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여성관련 세계10여개국의 기업인 및 산·학·연·관 대표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여성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 네트워킹디너는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정보 교류와 여성기업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더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석자 전원이 2만 불 소득염원을 기원하는 소망의 메시지나 각오를 담아 2만불 기원나무에 달아놓아 그 나무의 성장과 함께 여성 기업의 성장을 기대해보는 참여 퍼포먼스와 부의 여신 락슈미(인도)와 돈의 여신 모네타(그리스)가 참가자들의 성공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해주고 2만불 염원을 기원하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1. 여성벤처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2. 인사말을 하는 이영남 한국여성벤처협회장
 3. 선상에서 마련된 네트워킹디너
 4. 부의여신 락슈미와 돈의여신 모네타와 함께한 2만불 염원 퍼포먼스
 5.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제프리존스의 강연모습